



하나금융그룹

2021년 4월 1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Asset Talk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눈치 보기 양상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은 단기 조정을 거치던 위험자산이 반등하고 국채 및 크레딧 자산군은 다소 부진했다. 풍부한 유동성 속에 미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까지 언급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낮아지고 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미중 갈등 및 유럽 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은 주요 자산군의 방향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당사의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전주대비 0.27% 상승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미국에서도 감지되는 코로나19 확산 조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제어되기 시작하면서 주요국 체감지표에서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독일의 3월 IFO 기업환경지수(96.6)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래기대지수(100.4)가 지난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미국 컨퍼런스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109.7)는 지난 2월(90.4)에 비해 무려 19.3pt나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 2003년 4월(19.6pt)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에 해당하는 서프라이즈다.

다만, 유럽에 이어 북미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은 높은 백신 보급률 및 접종률(43.6% 및 28.4%)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일간 확진자수가 약 7만명에 육박했고, 지역별로도 전체 50개주 중 무려 38개주에서 전주대비 확진자수가 늘었다. 전문가들의 경고도 새겨들을 만하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옥스팜 등 국제단체들의 연합체인 '피플스백신'이 미 존스홉킨스대, 예일대, 임페리얼칼리지 등 저명한 과학자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 간 백신 보급의 큰 격차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양산해 현재 백신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았다. 3월 29일 현재, 전세계 백신 보급률은 7.2%에 불과할 뿐더러 주요국과의 격차는 매우 극심하다는 점에서 공생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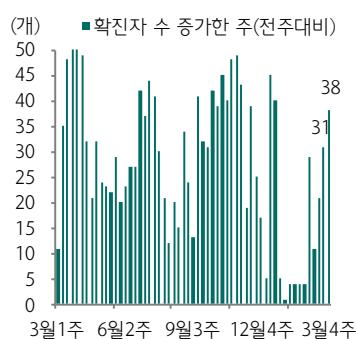
Economist/자산배분 나종혁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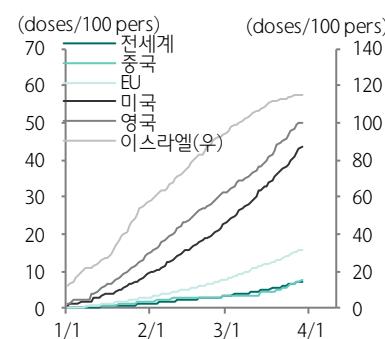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미국 50개주에서의 지역별 전이 우려 확산



전세계 주요국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추이



자료: CEC, 하나금융투자

자료: OWD, 하나금융투자

표 1.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자산그룹(BM)	3월 비중	자산군	3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0.9%	국내	13.00%	KOSPI	2.15%		
		선진국	16.40%	MSCI WL	1.10%	1.00%	1.22%
		신흥국	11.50%	MSCI EM	0.34%		
국채 (JPM GBI BI)	28.4%	국내	14.00%	국채+통안채(자체합성)	-0.51%		
		선진국	7.70%	JPM 글로벌 채권지수	-0.64%	-0.64%	-0.82%
		신흥국	6.70%	JPM 이머징 채권지수	-1.66%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7.50%	국내	7.90%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09%		
		투자등급	6.90%	바클레이즈 글로벌 IG 회사채	-0.49%	-0.49%	-0.23%
		하이일드	2.70%	바클레이즈 글로벌 HY 회사채	0.01%		
대체투자 (S&P GSCI TR)	3.30%	원자재	1.80%	S&P GSCI TR	1.63%		
		리츠	1.50%	FTSE REITs	0.69%	1.63%	1.20%
유동성(Cash Index)	10.00%	유동성	10.00%	KRW Cash Index	0.00%	0.00%	0.00%
주간수익률					0.19%	0.27%	
연초대비 누적 수익률					0.77%	1.25%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자산배분 전략에 활용해 볼 수 있는 ETF

종목코드	설명	최근 NAV 흐름
IVV	iShares Core S&P 500 ETF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대형주 ETF’ • S&P500 종목들에 시가총액 기준 방식으로 투자하며 보수율 0.04%로 동종 ETF 중 가장 저렴. SPY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 • 글로벌 경기 우려 등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나 유동성 모멘텀 유효한 가운데 위험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증시 투자 권고	(달러) 
IEF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 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중기 국채 ETF’ • 만기가 7-10년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둑레이션은 약 7.5년. 보수율은 0.15%로 다소 높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추적오차 제공 • 미 연준 금리동결 장기화 시그널 제공.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하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의 채권보유 전략 유효	(달러) 
EWY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 MSCI Korea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주식 ETF’ • 한국의 대형, 중형주에 투자하며, 전체의 98.26%를 한국에 투자. 산업은 반도체 29.12%에 집중되어 있음 • 신흥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경제 정상화 도모 중.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21년 2분기부터 매출 및 순이익 추정치 개선에 관심	(달러) 
DBB	Invesco DB Base Metals Fund • DBIQ Optimum yield Industrial Metals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산업금속 ETF’ • 가장 유동적인 기초 금속 중 하나인 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한 선물 계약으로 구성. 동종 ETF 중 높은 유동성과 낮은 추적오차 제공 • 코로나19 지속에도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국 제조업 경기 회복되면서 산업금속 수요 커질 것으로 기대됨	(달러) 